

분별과 집착 먼저 버려라



큰 힘이 됐습니다.

탄허 스님이 세계정에서 <화엄경> 교정 강화를 열었을 때 무비·통광·시공·영관 스님 등과 내전을 두루 섭렵했습니다. 성균관대 유학과 이종식 선생 강의를 들었고요. 무엇보다 출가자의 분문을 지키려 학교공부 중에도 방학이면 극락암을 찾아 안거(참선)했습니다.

(법산 스님은 최근에도 벽승선원을 찾아 하안거를 지냈습니다.)

1980년 조계종 포교원 삼일포교사 겸 포교국장을 살면서는 조계사에 불교요양대학을 처음 세웠습니다. 인도유학을 준비하다 탄허 스님이 "인도가 멀고 중국으로 알아보라"는 말에 중국어부터 새로 배우며 중국유학을 준비했어요. 어른 말씀은 새겨 들어야 합니다.

중국유학 준비를 마치고 경봉 스님에게 인사를 갔습니다. 스님은 "중이 참선해서 도 깨지면 돼지 유학 같 것 없다"고 하시더군요. 어른 말씀은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서울로 돌아와 한 달 쯤 지나 다시 찾아뵙습니다. 스님이 "그래? 너 한번 법문해봐라" 해서 극락암 대웅전에서 법문을 했습니다. 법문을 지켜보신 경봉 스님이 "됐다. 가서 국제포교사해도 되겠다" 해서 유학을 허락 받으셨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불러 방석 밑에서 학비에 보태라며 봉투를 꺼내주시는데 마음이 울컥하더군요. "공부 열심히 하겠다" 다짐하고 대만으로 떠났습니다.

동아시아사학과를 다니며 머물 곳을 찾다가 장만도 교수(중국문화대학) 소개로 해일강당에 갔습니다. 주지 여허 스님이 "한국과 중국은 국적만 다를 뿐 신앙은 하나고, 수행 목적이 같지 않나"며 입방을 허가했습니다. 주지스님 방을 나와 법당을 거쳐 제 방으로 가는데, 법당 부처님이 어찌 그리 거룩해 보이던지... 먼 미국에서 도반처럼 어울릴 수 있던 것은 모두 부처님 덕분 아니었겠어요? 해일강당 회주로 <중국선종사>를 저술한 근대불교학의 석학 인순 스님에게 배웠고, 철학연구소 오경웅 박사에게 선학을 배웠습니다.

대만에 있으면서 대만 최초의 한국사찰인 흥법원을 설립했습니다. 해일강당 주지가 바뀌어 유학생 법회 열던 곳이 마땅치 않아서였는데 어머니 별세 이후 한사람의 인연 따라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세계 있어 환경 변화는 수행과정의 새 계기였습니다. 환경에 적응할 마음가짐을 갖고 어떤 상황이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요. 나아가 '받아들인다'는 말에는 '나'가 남아있었습니다. 환경에 빠져들어야 합니다. 다른 예로 스승의 말씀은 따르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대가설법하며 임기응변 한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동질성을 찾아 이골이 가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그냥 바꾸려 한다면 누가,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평상심이 도(平常心是道)'라는데 일상생활에



서 어떤 가르침을 주는 지가 중요합니다. 알아차림(sati)도 생활 속에서 알아차림 하라는 것이지요. 선가에서는 '성성적적(惺惺寂寂)' 혹은 '적적성성(寂寂惺惺)' 해서 <영가집>에는 위빠사나를 성성적적으로, 사마타를 적적성적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만 적적은 사마타(고요함), 止, 성성은 위빠사나(알아차림, 觀)로 순서야 어찌됐든 정혜쌍수(定慧雙修) 해야 함은 분명합니다. (스님은 정혜쌍수를 주창한 보조선 전공자로 1987년 법정·현호 스님, 박성배 교수 등과 보조사상연구원을 설립한 발기인이다.) 향연 스님은 마당을 쓸다 날린 돌이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고, 서산 스님은 닭 우는 소리에 깨침을 얻었습니다. 누구나 대나무 소리, 닭 울음에 깨침을 얻지는 않지요?

빠를 깨는 수행이 있었기에 깨침의 기연(機緣)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법산 스님이 다시 찾잔을 들었다) 필요(업)에 의해 녹차를 우렸지만 녹차를 순수한 물로 되돌리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나무가 물을 머금으면 배 나무로, 국화에 주면 국화꽃으로,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됩니다. 다시 물로 되돌리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화화분해나 정수기, 증류 등 여러 방법이 있겠지요? 물들어 아뢰야식이 더럽혀진 것을 여래장(佛性)만 남겨두고 화화분해 하는 작업이 바로 수행입니다. 세상에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게을러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글=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hollo@hanmail.net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22> 매한 장원규 박사

매한 장원규 박사는 만년 청춘이다. 언제나 싱글벙글 미소가 입가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교무처장 시절부터 서무처장, 불교대학장, 불교문화연구소장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동국대학교에서 만도 20년 이상 근무하였다. 원래는 강원도 고성 사람으로 1909년에 태어나 간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건봉사 호산 스님의 제자가 되어 김일우·진진웅·박영호 강사에게 이력을 배워 모르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알다보니 아는 것이 서로 나오려 하여 말이 잘 되지 않아 강의시간에는 '자장가'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구락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오산불교학교 교장을 역임한 후 서울 숙명여대 교수를 지낸 이후에는 더욱 아는 것이 많아져 말이 더 잘 나오지 않았다고

다. 무슨 말이고 물으면 그 자리에서 직답을 피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분명히 이야기 하였다. 머리는 파마를 하지 않아도 약간 곱슬거리 빛으로 빛으면 바로 물결이 일고, 눈썹은 두툼하여 눈썹시가 순박하게 생겼다. 입술이 좀 두터워 말이 잘 안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는데, 언제나 곤색 양복에 하얀 와이셔츠, 줄무늬 넥타이를 매고 다니셨기 때문에 나이에 비하면 10년쯤은 젊어 보였다.

논문은 주로 인도, 중국, 한국의 역사학 편이 많다. 강의 또한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를 가르쳤으며, 특히 <화엄경>의 10지법문과 대승보살의 수행계위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열심한 스님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하니 누가 누구를 이끌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 일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다. 좋은 점만 보고 나쁜 점은 보지 않는다면 원수질 염려가 없다. 내가 일생동안 불교를 등지지 아니한 것은 불교의 이 같은 가르침이 좋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에는 일본에 들어간 유학생들이 참으로 많았다. 종비장학생도 30여명이 넘었는데, 그 가운데 불교학을 전공한 사람은 다섯 손가락도 안되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대부분 정년퇴직하고 늦게까지 남아있는 것은 그래도 불교와 출신들이다. 세속사람은 늙을수록 천해지지만, 불교는 늙을수록 귀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불교학과에 들어온 것을 큰 자랑으로 알고 귀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화엄경' 10지법문·대승보살 수행계위 관심 인도·중국·한국의 역사학 논문이 많아

한다. 박사님께서는 종종 민속종교에 대한 말을 많이 하였다. "나는 처음 산 기도를 하고 산신 할아버지께 반했거든. 무슨 음식이 생기거나 입을 것이 생기면 산신 할아버지께 바치고, '단군할아버지, 빨리 이 나라가 주권을 찾게 해주십시오' 하고 빌었는데, 한 번도 나의 소망을 들어주지 아니한 것이 없어. 나는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었거든. 큰사람을 만나면 크게 의치고, 작은 사람을 만나면 작게 대하고. 이것이 '대산소산산왕대신 대약소약산왕대신' 아니야? <산왕경>에 나오는 대로만 하면 말이 없어 굶겨나 옷이 없어 헐 벗지는 않는다. 할머님 산신님이 받들어 모시는 부처님을 잘 받들어 모신다면야 더 말할 것 있겠어." 하고 회월에 찬 웃음을 짓는

십지(十地)수행은 초지(初地)인 환희지(歡喜地)에서는 보시행(布施行)을 가장 우선하고, 다음의 제2 이구지(離垢地)에선 청정한 계행을, 제3 발광지(發光地)에서는 인욕 수행을, 제4 열혜지(燄慧地)에서는 정진바라밀을, 제5 난승지(難勝地)에서는 선정바라밀을, 제6 현전지(現前地)에서는 반야의 지혜가 현전하는 등의 6바라밀을, 나아가 10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으로 기본을 삼고 있다. "우리는 500년 동안 유생들의 피어린 저격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왔다. 다른 종교 같으면 100년도 못되어 없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장구한 세월을 죽지 않고 살아온 것은 조상들이 물려준 사찰 문화재에도 있지만 부처님의 신통력이 알게 모르게 여러 중생들에게 가피(加被)하셨고, 자기 구도에

이것이 4학년 때 마지막 강의 시간의 법문이다. 실로 불교는 인간적 종교로서는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근래에 이르러 그 역사적의식과 문화의식, 종교의식이 희박해지면서 그 가치관이 상실되어 가고 있지 않나?가 걱정된다. 전통을 소중히 하고 어른을 섬기며, 밑에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불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승속을 지나치게 가리고, 종파의 승열(勝劣)을 따지며, 문종의 기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질시하기 때문에 불교내부에서도 화합이 잘 안되는 것 같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했던가. "같은 계율을 같이 지키고, 같은 견해로 회통해 살며, 말과 뜻과 행을 사랑스럽게 하여 세상의 모범이 되어라."라고.

행운의 벽조목

[인공이 아닌 천재로 벼락 맞은 대추나무]

약전 특제품

옛부터 우리 조상님들께서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가장 신비한 나무라고 전해내려 오고 있는 진품 벽조목은 세상에서 돌도 없는 天下의 행운을 주는 보물 진품 벽조목은 수百年 목은 대木으로 충북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소재 1950년 7월 하순경 벼락 맞은 것을 지금까지 보관하던 귀중한 진품 벽조목은 평생 갖는 목걸이, 열쇠고리, 도장, 낙관, 단주, 염주 등을 수제작하여 각종 질병, 사업, 경제난, 입시, 승진, 가정화합, 자녀결혼, 호신부 패물 부적 재앙 액운 성불 소원성취를 염원하는 분에게 집귀를 막고 행운을 준다고 국어사전, 백과사전에서도 행운의 벽조목이라 합니다. 오직 진품만이 인생을 바꾸는 그 효능을 발휘하는 행운의 벽조목은 항상 생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연 따라 주어집니다.

* 구입하신 분은 점안을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홍련암 공덕하 전법사
02)985-1360 / 010-9964-2550

한국불교조계종 입증 안내

한국불교조계종은 청정한 종단입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화합종단입니다. 우주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순수하여 해탈 열반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탁마하고 수행정진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고민하고 인류평화통일에 동참합시다.

행자 모집합니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 초본 1부 · 이력서 1부 · 사진 5매 · 사찰내외부사진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한국불교조계종총무원장 보현 합장

인천시 계양구 오류동 155-2번지
문의 : 032)518-1588, 011-9524-8080

대웅전 건립불사

천선사

2010년 완공예정

차질없는 건립을 위하여 많은 동참바랍니다

정진기도

귀의 삼보 하옵고, 경주 남산 천선사에서는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철야법회를 2008년 5월 24일부터 2011년 2월 14일까지 천일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천선사 신도님들께서는 많은 기도정진 하시기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불보살님께 가피력으로 각 가정마다 공덕을 길이길이 쌓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천선사 주지 정관 합장

전화 054)748-0462 / 휴대폰 016-509-0462 FAX 054)771-6606

민속죽염

21년 전통

염의 일과 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함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이물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기준
가 루 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죽염 230g 37,500원
알갱이 죽염 230g 55,000원
알갱이 죽염 230g 50,000원

2번 기준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기본배출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zy.co.kr